박대통령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경제 살릴 것"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완성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진단한 뒤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했다"며 "우리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금년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유병언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여야가 한 마음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작권 환수와 세월호 등 국민이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 유가족 피켓시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시정연설과 여야 영수회담을 마치고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함께 국회 본청을 나설 때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본청 현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두번째 국회 시정연설

'세월호'는 없고 '경제'만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오전 9시42분 국회에 도착,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아 의사당에 입장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항의 시위 중인 세월호 유가족이 '가족 참여 특별법 제정'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지만 그쪽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의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등 5부요인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20여분간 환담한 뒤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기립박수 속에 연설대에 오른 박 대통령은 37분에 걸친 연설 동안 경제활성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무원 연금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와 경제관련법 처리를 당부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고는 했으나 '세월호'나 '세월호특별법'은 아예 거론하지는 않은 것이다. 대신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경제'로 59차례나 등장했다. 이어 국민(31차례)·안전(19차례)·성장(15차례)·혁신·노력(각 14차례)·창조(12차례)·개혁(11차례) 등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 연설을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본회의장 맨 앞 열을 돌며 새누리당 홍지만·강은희·하태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배재정·홍익표·김기준 의원 등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새 누리다 측 좌석 복도를 이용해 퇴장하며 여당 의원들과 인사했다.

박 대통령은 입·퇴장을 포함해 이번 연설에서 모두 28차례 박수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첫 시정연설 당시 35회 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박수는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구속 중인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희수·길정우·정두언 의원, 새정치연합 안철수·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해 김용익·신기남 의원 등이 불참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조직법 TF 3차 회의

여야, 해경·소방청 존치 문제 이견 못좁혀

여야 정부조직법 TF(태스크포스) 29일 3차 회의를 이어갔으나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의 '외청(外廳) 존치'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회의 시작 전 "오늘은 (협상을) 끝내야 한다"며 의지를 보였으나 새누리당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경 해양경비·안전과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해경·소방방재청을 존치하고 안전행정부의 인사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키로 한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최종 입장을 새누리당 측에 전달했다. 다만,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유지한다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해도 된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회의 이후 "외청 존치 문제가 아직 가닥이 안 잡혔다"며 "박근혜정부 들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됐는데 또다시 실패작을 만들어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을 던져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외청 존치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외청이 존치된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TF는 이날 오후 늦게 다시 만나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이 해경과 소방방재청 존치 문제에 대해 끝까지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조만간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박지원·김광진 등 국감 우수 의원 28명 선정

경실련

박지원 의원

김광진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4년 국정감사를 상임위별로 모니터링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정운영의 감시자 역할을 한 의원 28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임위별로는 ▲법사위 박지원(새정연), 서영교(새정연) ▲정무위 김기식(새정연), 김기준(새정연) ▲기재위 이한구(새누리), 홍종학(새정연) ▲미방위 문병호(새정연), 전병헌(새정연) ▲교문위 박홍근(새정연), 유기홍(새정연), 정진후(정의당) ▲외통위 심재권(새정연), 유승민(새누리) 의원을 뽑았다.

또 ▲국방위 김광진(새정연), 안규백(새정연) ▲안행위 박남춘(새정연), 진선미(새정연) ▲농림위 박민수(새정연), 안효대(새누리) ▲산자위 김제남(정의당), 박완주(새정연) ▲보건복지위 김용익(새정연), 김현숙(새누리) ▲ 환노위 심상정(정의당), 은수미(새정연) ▲국토위 김상희(새정연), 김태원(새누리), 박수현(새정연) 의원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또 국감에서 출석거부나 자료제출 거부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 3명을 '불성실 피감기관장'으로 선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광주시당, 당원 늘려 조직강화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당원 배가운동을 통한 조직강화에 나선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윤세)은 조직강화를 위해 책임당원 확보 등 당원 배가운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당은 또 오는 31일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여성부장 회의를 하고 동(洞)운영위원회 정비와 보강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당은 앞서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8개 당협을 대상으로 '2014년 당원협의회 현장 간담회'를 열고 당협별 활동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책임 당원 확보 등 당원 배가 운동과 함께 '당원명부 최신화' 작업도 진행됐다.

당원명부 최신화 작업은 현재 당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당협별 활동당원과 비활동당원을 명확히 구분해 명부를 전산화하는 작업이다.

아울러 다음달 4일에는 광주 서구 쌍촌동 Y웨딩컨벤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당원 연수도 열 예정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361-8111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법:백헌 학개론:임진택 공법:이강열 중개법:홍덕기 공시법:안규채 세법:임기원
개강 11月10日 주 부 반 11月~12月 기초과정 전 과목 강의 합니다. 성 인 반 직장인반 인터넷 동영상 수업은 무료
합격률 1위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 1위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력 1위 "새롬" 전국 수석합격자 3명 배출
합격을 위한 새롬인의 차별화된 시스템!! ■기초과정 → 11月 ~ 12月 ■기본서Ⅰ → 1月 ~ 2月 ■기본서Ⅱ → 3月 ~ 4月 ■기본서Ⅲ → 5月 ~ 6月 ■문제풀이 → 7月 ~ 8月 ■총정리 → 9月 ~ 10月 ※월별 1일은 정규 개강일 입니다.
합격을 위한 책임강의! 모르면 알때까지!
광주새롬학원에서 제15회~제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직업 상담사 특강 (주·야)
•학원 홈페이지 한글주소 검색: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학원카페 다음카페 검색창: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새롬 행정고시학원 광주본원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2층 ☎361-8111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5층 참조은 안과
4층 한길 통증 의학과
2층 신한은행
1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쑥쑥!!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 • 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창구송금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혜택확대
서양새마을금고 본 점 671-5000 주유소사업소 720-288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